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31.(화) 11:00 < 11.1.(수) 조간 > 배포 2023. 10. 31.(화)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해 겨울을 따뜻하게

- 겨울철 대비 집단에너지사업자 안전점검 회의
- 지역 냉난방 공급시설 현황 및 열 수송관 누수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월 31일(화) 세종에서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23년 겨울철(동절기)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협회, 집단에너지사업자들 50여 명이 참석하여 난방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대비한 사업자들의 자율점검 사항과 집단에너지 최신기술 동향을 공유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발표하면서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 수송관 보유 사업자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및 열 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등에 대한 제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 겨울철 열공급시설 안전점검 기간: '23. 10. 30.(월) ~ 12. 1.(금) (33일간)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안전점검 항목과 유의점 및 봄철 실시한 열 수송관 집중안전점검 결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열화상 관로 진단 기술과 지역난방 열 수송관 성능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안내도 함께 진행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겨울철 점검 기간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자율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비대면 화상회의를 열어 중간상황을 점검하고, 이 기간에 누수사고 발생사업장 및 자율점검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겨울철 점검 기간에 산업부는 에너지공단과 함께 주요사업장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난방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열 수송관 누수부위 점검 등 열공급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집단에너지 안전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책임자	과 장	박상희(044-203-3920)
		담당자	주무관	장성운(044-203-39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3년 동절기 열공급시설 안전점검회의 개최계획**

1. 목적

□ 동절기 대비 집단에너지 시설 안전점검 안내 및 최신 기술동향 등을 전파하여 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

2.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10.31.(화) 14:00~16:00 /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세종(4층)

□ (참석자)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50여명

□ (주요내용) ❶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추진현황 ❷ '23년 동절기 대비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관리점검회의 ❸ 집단에너지 협의체를 통한 최신기술 공유

3. 세부 일정

구분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부	14:00~14:05	(5′)	인사말(산업부)	전력정책관
	14:05~14:15	(10′)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추진현황	신산업분산에너지과
	14:15~14:25	(10′)	'23년 동절기 대비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관리점검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14:25~14:45	(20′)	'23년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집중안전점검 결과 및 우수사례 발표	한국지역난방공사
	14:45~14:50	(5′)	단체사진 촬영	-
	14:50~15:00	(10′)	휴식	-
2부	15:00~15:30	(30′)	드론을 활용한 열수송관 관로 열화상 진단기술 소개 및 질의응답	지역난방안전㈜
	15:30~16:00	(30′)	지역냉난방 열수송관 성능평가 도입 안내 및 사업자 의견 수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6:00	-	마무리	-